

# 통풍 (痛風)

## 통풍으로 고생한 유명인들



알렉산더 대왕



미켈란젤로



루이 14세



뉴우튼



프랭클린



괴에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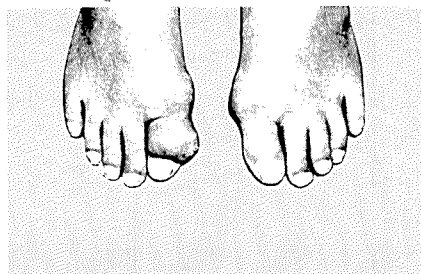
### ● 통풍(痛風)이란

어느날 밤 갑자기, 엄지발가락의 끝부분이 붉어지고 구운 빵처럼 되면서 통증이 온다. 이 통증은 산발적으로 수일에서 일주일정도 계속되다가 씻은 듯이 없어진다.

이것이 “통풍”이라는 병의 시작이다. 「아픈 바람이 불고 가다…」라는 이름을 가진 병…….

이런 다음 아무 일도 없다면 이 병도 큰 문제거리가 아니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머지 않아 몇개월 후에 같은 통풍 발작이 일어난다. 그런 다음 발작의 회수도 증가하고, 통증의 간격도 좁아지게 된다.

### 만성통풍(慢性痛風)의 통풍결절(痛風結節)



이렇게 시작된 통풍은 여러가지 만성통풍으로 진행되고 우리 몸 여기저기의 관절이 변형되어 “통풍결절”이라는 작은 혹이 된다. 게다가 전신적으로도 요로결석이 되거나 동맥경화가 갑자기 발생되거나 신장장애, 심근경색, 요독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이 “통풍”이라는 병의 대략적인 줄거리이다. 최근에는 이 통풍에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올바른 치료만 받는다면 통풍발작에 의한 괴로움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 ● 우리나라에서도 통풍환자가 늘고 있다.

구미에서는 이 병이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잘먹고, 크게 즐기는 경향이 있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제왕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알렉산더 대왕, 루이 14세, 뉴우튼, 괴에테 같은 유명인들이 이 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통풍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최근에는 통풍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통풍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통풍 환자는 치료를 받는 수의 몇 배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 80만명의 환자가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이대로 식생활의 서구화가 계속된다면 당분간은 환자의 수가 아주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것은 이 병이 남성에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통풍환자의 95%가 남성으로 대부분 30세~60세의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에게 많다. 그래서 이 병은 남자 성인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 통풍에 걸릴 가능성은 아주 적고, 폐경기 이후가 대부분이다. 어느 정도 유전성일 수도 있다.



## ● 통풍의 원인

세포 중에 있는 “핵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노산(尿酸)”이라는 물질이 되고, 노산의 일부는 장 내에서 분해·배설되지만 대부분은 신장을 지나서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

핵산은 어디든지 있는 물질로, 체내에서 계속 분해·합성되며 일부는 음식물로 부터 섭취한다. 핵산의 성분 속에 있는 “퓨린(Purine)”체라는 물질이 노산에 분해되는데, 체내의 핵산에서 분해되는 내인성(内因性)과 음식물로부터 공급받는 외인성(外因性)이 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중의 노산치가 항상 높으면 이 노산이 관절같은 곳에 침착되는데, 이것이 바로 “통풍”이다. 그래서 통풍 환자의 혈액을 검사해서 노산치가 높은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통풍의 일반적인 진단법 중의 하나이다. <계속> ㉔

